

# ‘나홀로 질주’ 한국 육상...저변 확대 시급하다



김국영이 27일 강원 정선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7 코리아오픈국제육상경기대회 남자 100m 결승전에서 질주하고 있다. 김국영은 10초07에 결승선을 통과해 한국신기록 달성과 동시에 런던 세계선수권대회 기준 기록(10초12)도 통과했다. /연합뉴스

**김국영, 한국신 5번 경신**  
근지구력 향상·‘후반 스피트’ 약점 보완  
육상저변 확대 언제쯤  
미래 불안해 기피...위상 하락 해결 과제

김국영(27·광주시청)이 한국 육상에 희망을 안겼다. ‘육상 단거리 불모지’ 한국에서도 100m를 9초대에 뛰는 스프린터를 충분히 키워낼 수 있는 꿈을 꾸게 했다는 점에서다.

육상계 안팎에서는 김국영의 한국신기록 작성을 계기로 ‘홀로 뛰는’ 육상 종목에 대한 근본적 육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홀로 쓴 5번의 한국신기록=김국영이 27일 ‘2017 코리아오픈국제육상경기대회’에서 세운 100m 한국신기록은 본인이 세운 5번째 신기록이다. 한국 육상의 역사를 새로 쓴 순간, 뜨겁게 달구진 트랙 위로 관중들의 환호성이 쏟아졌다. 결승선 당시 바로 옆 레인의 선수가 부정출발, 심리적으로 위축될 법한 상황에서 차분하게 레이스를 펼쳐 대기록을 만들어냈다. 뒷바라지 기준 초속 2m 이하보다 낮은 초속 0.8m였다.

그는 지난 2010년 10월 7일 이후 제 64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예선(10초 31)에서 31년 묵은 한국기록을 깬 이후 이날까지 모두 5차례나 자신이 세운 기록을 넘어섰다.

국내 무대에서 적수가 없는 김국영이 자신과의 외로운 경쟁을 벌이며 7년간 일궈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기록 경신 속도는 가팔랐다. 고(故) 서말구 해군사관학교 교수가 지난 1979년 멕시코에서 세운 한국기록(10초34)을 31년 만에 바꿔놓은 이후, 그는 같은 날 10초23으로 또다시 ‘기록 경신’에 성공했다.

5년 뒤에는 ‘10초 1대’에 진입했다. 그는 지난 2015년 7월 9일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10초16으로 새로운 한국신기록을 썼다. 한국 선수로 10초1대의 기록을 낸 최초의 스프린터였다.

2015 베이징 세계선수권과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라는 큰 대회도 경험했지만 좋은 기록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 남자 육상 단거리 100m 한국신기록 변천사

2017. 6. 27	한국신기록	김국영(광주시청)	10초07
2017. 6. 25		김국영(광주시청)	10초13
2015. 7. 9		김국영(광주시청)	10초16
2010. 6. 7		김국영(안양시청)	10초23
		김국영(안양시청)	10초31
1979. 9. 9		서말구(동아대학교)	10초34
2009. 8	세계신기록	우사인 볼트(자메이카)	9초58
2015. 6	아시아신기록	페미 오구노데(카타르)	9초91

자료/ 대한육상연맹(KAAF),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연합뉴스

좌절하지 않았고 훈련에 집중했다. 2년간 400m 훈련에 집중하며 근지구력을 키웠고 스피드로 변환하는 데 힘을 모았다. 약점인 ‘후반 스피트’를 가다듬으며 막판까지 속도를 유지하는 레이스를 펼치는 데 주력했다.

훈련 성과는 25일 강원도 정선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 45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남자 100m 준결승에서 10초13이라는 한국신기록 작성으로 이어졌다. 이를 뒤에는 세계선수권 기준 기록(10초 12)을 통과한 것 뿐 아니라 한국 육상을 ‘10초 0대’로 끌어올리는 대기록을 달성하는 선수가 됐다.

김국영은 경기 뒤 인터뷰에서 “100m는 스타트부터 피니시까지 실수 없이 해내야 9초대에 진입할 수 있다”면서 “최근 집중하고 있는 보폭을 넓히면서 속도를 유지하는 훈련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 선수들의 일거수 일투족은 물론 감정·영양·휴식까지 꼼꼼히 챙기는 심재용 광주시청 육상팀 감독의 훈련 스타일도 한몫을 했다는 평가다.

◇말뿐인 육상 저변 확대...언제나 될까=한국 육상계는 김국영의 ‘10초 0대’ 기록 달성을 계기로 ‘9초대’ 스프린터를 꿈꿀 수 있게 됐다. 당장, 운동의 기초인 육상종목을 확대하는 스포츠 정책을 통해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심재용 광주시청 육상팀 감독도 지난해 “육상 등 기초 종목 기반을 강화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지적한 바 있다.

녹록하진 않다. 광주만 하더라도 대한육상경기연맹과 광주시육상경기연맹이 마련한 ‘전국 꿈나무 선수 선발 육상경기대회’, ‘광주시체육회장배 육상경기대회’를 개최하며 우수 자원을 발굴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위상 하락을 막을만한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 열린 전국소년체전에서도 광주는 49개이 금메달이 걸린 육상에서 단 한 개의 메달도 따지 못했다. 동메달 1개가 전부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선수 선발이 어려워진 점, 불명확한 진로로 인한 학부모들의 운동 기피현상, 학습결손 우려로 인한 선수 확보 문제 등도 체육회 혼자서 해결하기엔 벅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차원의 체계적 육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기초종목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하는 한편, 운동의 기초인 육상대회를 확대해 우수 자원을 꾸준히 발굴하고 현장에서 뛰는 선수들의 의견을 수렴, 미흡한 지원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김지용기자 dok2000@

## KIA 선수들 2년만에 반바지 착용, 왜?

감독 부임 후 변화의 바람...“최상 컨디션 위해”

KIA 타이거즈에 작지만 큰 변화가 있었다.

삼성 라이온즈와의 10차전이 열린 27일, 챔피언스필드에 낯선 모습의 KIA 선수들이 눈에 띄었다.

이날 KIA 선수들은 반바지 차림으로 그라운드 올라 훈련을 진행했다. 김기태 감독이 부임한 2015년부터 지난 2년간 볼 수 없던 풍경이다. 야구선수의 품격과 격식을 중요시하는 김 감독은 그동안 선수단의 반바지 착용을 금지했다. 이에 대해 김 감독은 “내가 힘이 없어졌다”며 농담을 했지만 ‘이심전심’이 만든 변화다.

사령탑의 의중을 알고 알아서 움직이는 선수들과 이들을 향한 믿음 속에 ‘김기태호’의 3번째 시즌이 흘러가면서 변화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올 시즌 시작부터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다.

앞선 2년 선수들은 ‘체력테스트’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겨울을 보냈다. 기초 체력을 측정하고, 4km 달리기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선수들은 휴식 기에도 부지런히 땀을 흘렸다.

올 시즌에는 체력 테스트 일정이 없었다. ‘알아서 몸 관리를 하고 시즌에 대비하라’는 메시지를 선수들이 이해하면서 굳이 형식적인 자리를 마련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선수들의 겨울 풍경이 달라진 것이다.

지난 스프링 캠프에서도 김 감독은 ‘캠프’ 김주찬의 요청을 수락하며, 기존 방침에 변화를 줬다.

전지훈련 때 아침 산책은 KIA 선수단의 공식 일정 중 하나였다. 하지만 지난 오키나와 캠프에서부터 아침 산책은 자율적인 일정이 됐다. 또 야

침 식사 시간 때 슬리퍼 착용도 가능해졌다.

김 감독은 27일 반바지까지 허용하면서 잘 따라와 준 선수들에게 응답했다.

변화의 날이었던 이날은 새로운 출발선에 선 날이기도 했다. 이날 경기 전까지 KIA는 72경기를 소화하면서 2017시즌 144경기 중 절반을 소화했다.

앞선 NC 다이노스와의 주말 3연전 싸움이 꽤 어렵게 남았지만, KIA는 변화 속 새 마음으로 전환점을 돌게 됐다.

김 감독은 “지금은 선수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다”며 “72경기를 치렀는데 한 게임 한 게임 선수들이 잘해준 게 더 많았다. 좋았던 것 유지해가면서 남은 경기에도 잘 해보겠다”고 남은 시즌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워진 날씨, 최상의 컨디션 유지를 위해 원칙을 깬 김 감독과 KIA 선수들. 작지만 큰 변화가 만들어낸 결과에 눈길이 쏠린다.

/김지용기자 wool@kwangju.co.kr

## 긴바지 한승택 “젓값 치르고 있어요”

덕아웃 T 특목

▲늦게 왔으니 많이 보여드려야죠 = 좌완 임기준에게는 지난 25일이 시즌 출발날이었다. 지난 오키나와 스프링캠프에도 참여하지 못하며 마음고생을 했던 임기준은 이날 올 시즌 처음 엔트리에 등록된 뒤 선발로 첫 경기를 소화했다. 결과는 5이닝 5피안타 4볼넷 2탈삼진 2실점 (1자책점). 아쉬운 스트라이크 판정 속 5회를 채우지 못하고 내려왔지만 고질적인 제구 난조에서 벗어나 빠르고 공격적으로 승부를 하는 모습이였다. 김기태 감독도 “괜찮았다. 힘도 있고 좋았다”고 임기준의 피칭에 대해 평가했다. 임기준은 “편한 마음으로 던지려고 했다. 템포를 빨리 가고 팔 스윙도 짧게 바꿨다”며 “늦게 온 만큼 보여드린 게 없다. 발전된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늦더라도 확실하게 = ‘사이드암’ 임기영의 복귀가 다음 주로 늦어질 전망이다. 27일 경기에 앞서 김기태 감독은 취재진으로부터 임기영의 등록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김 감독은 “아직 공을 던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지난번에 남재현이 (긴장

하고 힘을 써서 던지다가) 부상을 당한 것처럼 1군하고 2군은 차이가 있다. 2군에서 실전을 치르고 합류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주 복귀가 어렵다고 밝혔다.

▲젓값 치르고 있어요 = 27일 KIA 선수들은 김기태 감독 부임 이후 처음으로 반바지 차림으로 훈련을 했다. 하지만 반바지 사이에서 긴 바지를 입고 땀을 흘린 선수가 두 명이 있었다. 안 그대로 이것저것 장비를 착용하느라 여름에 고생하는 포수 한승택과 김민식이였다. 한승택은 “블로킹 연습을 해야 해서 긴바지를 입고 있다. 지난 경기에서 민식이 행과 돌이 공을 때트했다. 젓값 치르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두 사람은 수비 훈련이 끝난 뒤에는 반바지 차림으로 타격 훈련을 했다.

▲맞습니다 = 얼마 전 김기태 감독은 “바나나가 호령의 수비가 세계 최고라고 하더라”며 수비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바나나지는 27일 취재진으로부터 ‘세계 최고’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바나나지는 “그렇게 말한 게 맞다. 김호령의 움직임이 정말 좋다. 본능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 자연스럽게 수비를 한다”며 김호령의 수비를 극찬했다. /김지용기자 wool@kwangju.co.kr

## 한국 야구대표팀 전임 감독제 도입

올해부터 국제 대회에 참가하는 한국 야구 국가대표 ‘드림팀’의 지휘봉을 사상 처음으로 전임 감독이 잡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 협회)는 국가대표 전임감독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사안을 논의 중이다.

아시아게임, 올림픽과 같은 각종 국제 대회에 대표팀 감독 선임과 선수 선발 권한은 아마협회에 있다. 하지만 협회 이사회에서 ‘감독 선임과 선수 선발을 프로에 위임한다’고 결정하면 KBO는 전임 감독 선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가대표는 이론의 여지 없이 포지션별로 최고 실력을 겸비한 선수가 태극마크를 달아야 하는 만큼 아마추어보다는 프로 선수 전원으로 드림팀이 짜일 공산이 크다.

자연스럽게 KBO리그의 ‘컨트롤 타워’인 KBO가 감독 선임과 대표팀 구성에서 주도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이리하면 1998년 방콕 아시아게임에서 프로와 아마추어, 해외파 선수를 망라한 첫 야구 ‘드림팀’이 결성된 이래 최초의 전임 감독이 탄생한다.

전임 감독은 오는 11월 16~1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리는 한국·일본·대만 3개국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2017’에서 데뷔한다. /연합뉴스